

# 강진군, 원스톱 민원실 이용편의 증진

### 민원실 리모델링 후 원스톱 통합민원실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 북카페·소통공간 등 시설 확충... 방문 민원인 87% 매우 만족



강진군은 지난 8월21일부터 24일 까지 리모델링을 마친 원스톱 통합 민원실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민원실 리모델링 이후 달라진 민원실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방문객 7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1주일에 1회 이상 방문 민원인이 설문 전체 인원 중 56%(40명)로 특히 리모델링 공사 후 민원실 환경에 대해 "쾌적하고 편리해졌다"는 답변이 99%(70명)를 차지해 응답자 대부분이 민원실 시설에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전체적인 만족도 평가에서는 87.4%(62명)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강진군청 민원실은 2000년에 신축된 이후, 일일 평균 방문 민원인이 2백여 명에 이르지만 민원인을 위한 공간이 협소하고 다소 불편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6월부터 한 달 간 군민들이 편한 공간에서 민원업무 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했다.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휴게실 북카페를 비롯해 아름다운 배려창구, 365무인 민원발급, 뉴스리더기, 특이민원 비상벨, 공기청정기, 모유 수유실, 민원인용 TV, 농협 365코너 등 30여 가지의 민원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이와 함께 민원실 내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화가 그림과 강진의 춘하추동 사계절 사진을 벽면에 배

치해 갤러리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전에는 건축과 복합민원 업무가 창구에서 이뤄졌지만 리모델링 후에는 사무실 안쪽으로 재배치하고 두 개의 민원상담실을 마련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민원상담을 갖도록 했다.

민원인들의 휴게공간인 북카페에는 최신 월간잡지를 비치하고, 민원 사무편람 등 100여 권의 도서를 비치했으며 누구나 무료로 원두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컴퓨터와 복사기, 팩스, 휴대폰 충전기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민원실 입구에는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개설해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 90종의 민원업무를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새롭게 환경을 개선한 민원실에 많은 군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군민들이 편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기탁

### 12년동안 총 174억원 장학금 모금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지만 인재 양성을 위한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6월말 ▲DB손해보험 나영인 수코어 대리점(대표 나영인) 500만원 ▲조은컴퓨터(대표 이일교) 100만원 ▲다온숯불갈비(대표 오재정) 100만원 ▲만금수산(대표 허광무) 100만원을 기탁했다.

또 지난 8월 25일 ▲(주)한미엔텍(대표 임동혁) 1,000만원 ▲알뜰마트(대표 박병민) 1,000만원 ▲임회면 중만리 마을회(이장 광재구) 1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특히 2020년 9월 현재까지 지역민, 독지가 등 소액 기부자 450명이 2억원을 기탁해 훈훈한 지역사회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당시부터 3,000만원 이상을 기탁한 진도형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9명은 총 4억원을 기탁했다.

장학회 기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기탁한 장학금이 지역의 촉망이 될 인재 양성에 소중하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는 설립이후 12년 동안 총 174억원을 조성해 장학금 20억원(2,349명), 명문고 육성 11억원, 교육경비 30억원 등 61억원을 지출하고 현재 112억원의 장학금이 적립되어 있다.

진도=조상용기자

## 장흥군, '인(In) 코로나 비상 행정' 돌입

### 코로나 장기화 극복...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장흥군이 9월 1일을 기점으로 '인(In) 코로나 비상 행정' 체제에 돌입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8월31일 군청회의실에서 업무계획 보고회를 주재하고 9월 1일부터 1년간 '인(In) 코로나 비상 행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코로나19 상황이 내년 까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감염병 방역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까지 대비한 군정 대안을 제시했다.

인(In) 코로나 비상 행정은 크게 ▲'방제 활동' 비상 행정 ▲'지역경제' 활성화 비상 행정 ▲'혁신행정' 비상 행정 등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방제 활동 비상 행정'은 코로나 등 감염병 방제는 물론, 태풍, 폭염, 가뭄, 화재 등 각종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사고로부터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생활안전망 구성을 골자로 한다.

현재 장흥군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꼼꼼한 방역활동을 전개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장흥군은 종합적인 방역 노력으로 전라남도에서 코로나 지역감염이 없는 4개 청정지역 가운데 한 곳을 차지하며 그 성과를 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비상 행정'은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가 핵심이다.

일자리는 청소년, 장년, 노인층을 포함한 '장흥형 일자리'를 더욱 확충할 방침이다.

현재 장흥군은 ▲대학생·청소년 방향 중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연령, 성별, 생활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해 생산적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계획



이다.

주민 숙원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통한 일자리도 늘린다.

각 분야에서의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생활 환경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건설, 토목, 조경, 중장비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일거리를 만들어 낸다.

생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농림축수산물 생산과 유통 체계 개선도 노력한다.

코로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역 물품 사주기를 실시하고, 지역 상품권인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을 지속적으로 판매 확대 나갈 계획이다.

'혁신 비상 행정'은 현장을 중심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시스템화하고, 특히 민원행정에 있어서는 혁신이 기본이 된다.

정종순 군수는 지난해 초부터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지역 사회 각계와 소통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시간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직업군과 만남, 사업 현장 방문, 마을 주민 간담회를 통해 군정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 왔다.

정 군수는 앞으로도 주민 숙원사업과 생활 민원 처리를 위한 의견수집에 적극 나섰다.

한편, 읍면 책임행정으로 각종 민원을 해결할 방침이다.

정종순 군수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노력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정종순 군수는 "먼저는 지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챙기고,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 성장동력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완도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 발열체크소 장흥군 노력항·고흥군 녹동항 추가 총 6개소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8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다.

지난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 8개월간 코로나19 청정지역이었던 완도군에서 지난달 27일 청산면의 80대 부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날 긴급 발표문을 통해 확진자 발생 경위와 이동 동선, 조치 사항을 소상히 설명했다.

아울러 "타 지역 출타 자제와 외국인 접촉을 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9월 1일 기준, 청산면 확진자와 관련하여 완도군에서는 총 59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여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청산면 확진자와 함께 고속버스를 이용한 승객은 총 20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완도군 거주자 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7명은 타 지역 거주자로 확인되어 본인에게 주의하도록

전화 안내했다.

청산 확진자 발생과 관련된 조치 사항을 모두 완료한 채 군은 상황 파악 및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군은 전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이행은 물론 완도군만의 방역 체계를 가동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 청산도와 노화, 보길, 소안도를 찾는 관광객 및 출항인 등 완도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타 지역 거주자는 여객선 승선을 통제한다.

군 주요 관문인 완도대교와 고급대교, 해남 땅길항, 완도여객선터미널에서 발열체크소를 운영 중이며, 9월 1일부터는 장흥군 노력항과 고흥군 녹동항에서도 발열 체크를 실시한다.

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완도전통시장(5일 시장)은 지난 8월 30일과 9월 5일 임시 휴장하기로 결정했다.

완도=김광수기자

#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